

특특뉴스

임대소득자 상위 0.1% 연 8억 벌어

부동산 임대소득 상위 0.1%에 속하는 1,209명은 한 해 임대료로만 8억원가량을 번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정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자 가운데 부동산 임대 소득자는 120만9,861명이었다. 2019년 109만3,550명, 2020년 113만7,534명에 이어 증가 흐름이 이어졌다.

전체 신고 임대소득 역시 2019년 20조7,025억원, 2020년 20조9,516억원에 이어 2021년 21조4,971억원으로 늘었다. 임대소득자 상위 0.1%인 1,209명의 신고 소득은 총 9,852억원이었다. 1인당 평균 소득은 8억1,500만원이다. 다만, 최상위권의 평균 임대소득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 2017년 10억1,900만원에서 2018년 9억7,400만원, 2019년 9억2,700만원, 2020년 8억6,000만원으로 지속해서 줄었다.

그래픽 경제

수능 'N수생' 비중

6월 모의평가 기준



통합수능 'N수생' 비중 늘었다

29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다음 달 1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2024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에 고3 재학생 37만5,375명(81.0%), 졸업생 등 재수·N수생(검정고시생 포함)은 8만8,300명(19.0%) 지원했다.

6월 모의평가 기준으로 재수·N수생 비중은 평가원이 관련 통계를 공개한 2011학년도 이후 최고다.

물가 오르자 부모 품으로... '리터루족' 는다

1인 한 달 평균 생계비 241만원

공과금·식비·교통비 등 줄인상

68% "경제 여건 부족 독립 못해"

나주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양 모씨(32)는 최근 자취를 시작한 지 3년 반만에 본가인 광주 북구 양산동 집으로 돌아왔다. 각종 공과금과 월세, 보험비 등을 납입하면 남는 돈이 하나도 없어서다.

양씨는 "지역이라 월세가 그리 비싸지 않으니 차라리 교통비와 시간을 아껴서 전세자금을 모으자는 생각으로 자취를 결심했는데, 자취 후 생활비에, 공과금에 안 오르는 것이 없어 오히려 계획이 틀어졌다"며 "어차피 금리도 높고, 최근 전세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으니 당장 전세자금을 모으는데 집중하기보다는 차라리 집에 다시 들어가 식비와 공과금 등을 아끼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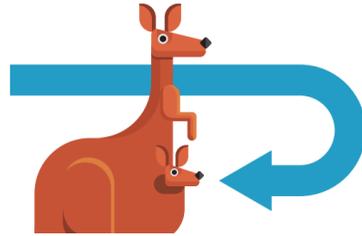
이 훨씬 이득이 될 것 같아 본가로 돌아오기로 마음먹었다. 통근이 조금 힘들어질 것 같긴 하지만, 생각해보면 한 달 기름값이 월세보다 더 싸니 손해도 아니겠구나 싶다"고 말했다.

물가를 시작으로 금리, 전기·가스 등 공과금에 전세사기까지 극성을 부리면서 독립한 청년들이 다시 부모의 품으로 돌아가는 이른바 '리터루족' 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2022년 실태생계비'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전월세로 거주하는 비혼·1인 가구 한 달 평균 생계비는 241만원으로 전년 대비 9.3%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소비지출과 비소비지출로 구성된 12개 항목 중 가장 크게 오른 것은 주거·수도·광열비로, 한 달에 53만여원, 전년대비 22.3% 급증했다. 그 뒤를 이어 음식·숙박비가 36만여원으로 14.9%, 교통비가 21만여원으로 8.8%, 식료품·비주류음료는 15만여원으로 6.5% 늘었다.

주거비 부담은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 동향' 에서도 엿볼 수 있다.



통계에 따르면 1인 가구의 주택·수도·전기 및 연료는 전년동월대비 6.1% 상승했다. 전세는 0.9%, 월세는 0.7% 각각 상승했으며 공동주택관리비 또한 5.3% 높아졌다.

공과금 분야로는 도시가스가 32.5%로 급등했고, 지역난방비도 30.9%, 전기료는 22.5% 올랐다. 통계청의 이번 소비자물가 동향 결과가 4월을 기준으로 한 것을 고려하면 지난 15일부터 전기·가스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1인 가구의 공과금 부담은 더욱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무조정실이 만 19~34세 청년 가구를 포함해 전국 약 1만5,000가구를 대상으로

'2022 청년 삶 실태조사' 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청년들의 57.5%가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67.7%는 아직 독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답했으며, 그 이유로 '경제적인 여건을 갖추지 못해서' 라고 응답한 비율이 56.6%로 가장 많았다.

최선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집합적으로 비혼인구의 부모 동거율이 높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비혼인구가 적어도 주거 면에서 자립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비혼인구의 연령, 성, 계층, 경제활동 등 상태의 다양성을 고려해도 여전히 개인들의 선호가 부모·자녀가 의존적 관계를 원해서가 아니라 현실적인 제약 조건이 원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성인이 된 후에도 부모와의 동거를 지속하거나 비동거 부모에게 지속적인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것은 제도와 정책의 문제로 더욱 심화된 연구를 통해 개선돼야 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오지현 기자

광주국세청장, 군산세무서 방문

소득신고·장려금신청 창구 점검

납세자 애로 청취·직원 격려도

광주지방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 및 장려금 신청기간을 맞아 최근 운영석 광주국세청장이 군산세무서를 방문, 신고창구 운영상황 등을 점검했다고 29일 밝혔다.

운영석 청장은 소득세 신고창구와 장려금 신청창구 등을 둘러보며 세무서를 방문한 납세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운 청장은 "올해는 소규모 자영업자 뿐만 아니라 주택임대소득자와 연금 생활자 등에게도 모두채움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고, 전자신고 화면도 단순하게 개선됐다"며, "ARS 전화·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앱))를 이용해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장애인·노약자 도움창구' 를 방문한 납세자에게도 장려금 신청에 불편함이 없도록 더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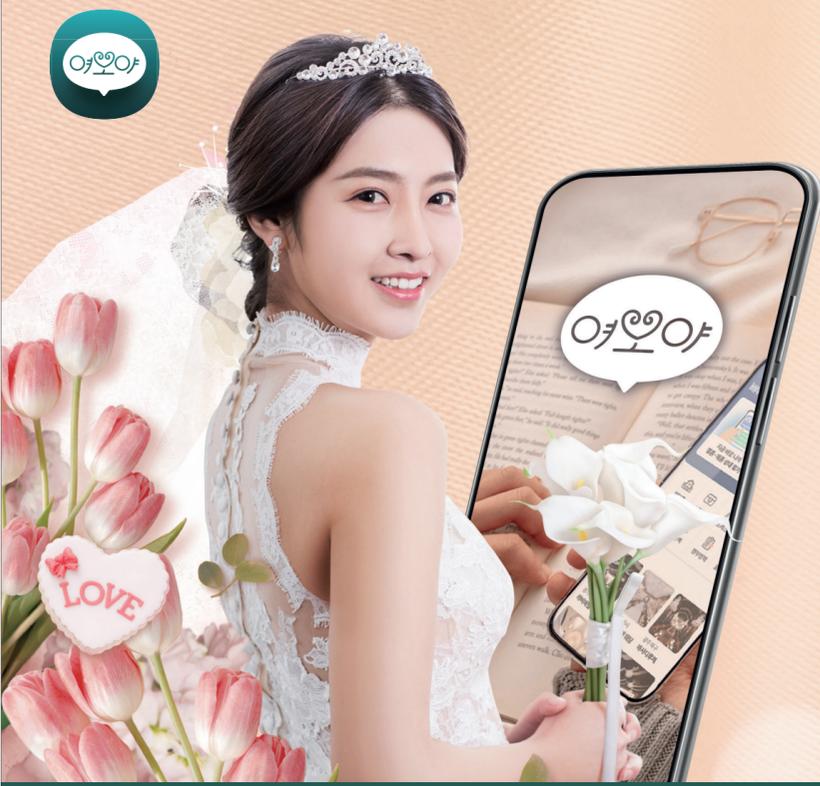


운영석 광주국세청장은 최근 종합소득세 신고 및 장려금 신청기간을 맞아 군산세무서를 방문, 신고창구 운영상황 등을 점검했다. /광주국세청 제공

세심하게 배려하고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광주국세청은 수출기업·산불 피해 납세자(합평·순천)에 대해서는 유동성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납세담보 없이 직권으로 연장하고 있으며,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경영상

어려움으로 기한연장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연수 기자


인연이 있다 결혼으로 있다

딱 맞는 인연을 만나고 싶을때 "여보야"

"여보야" 는 새롭고 합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결혼문화를 창조하기위해 제작된 결혼 전문 플랫폼 입니다.

지금 스마트폰에서 "여보야" 를 다운로드 받고 당신과 평생을 함께 할 배우자를 찾아보세요



빅데이터와 최신 AI 배우자 찾기



프리미엄 결혼 플랫폼 여보야 노블레스



결혼부터 출산까지 여보야가 적극 지원해드립니다

고객센터 1522-3379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773 세정아울렛 4층

이제 "여보야" 에서 인연을 만나보세요

다운로드하기



App Store에서 다운로드하기



1

